

국내 대학실험실 폐질산 누출사고

2013년 12월, 서울에 위치한 ○○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이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질산 용액을 폐기하기 위해 운반하던 중 질산이 누출되어 3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 발생



※ 사진설명 : 질산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환경안전원에서 실시한 실험실사고 대응훈련(2011년) 장면으로 이번 사고와는 무관함

1. 사고 개요

- 가. 일 시 : 2013년 12월 23일(월), 14시15분경
- 나. 장 소 : 국내 ○○대학교 실험실
- 다. 사고 유형 : 유해물질 누출사고
- 라. 피해 현황 : 보고된 피해사항 없음

2. 사고 경위

- 가. 대학원생이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질산 용액을 폐기하기 위해 운반하던 중 2.5ℓ 가량의 질산이 누출되었고 누출된 질산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하여 건물 내에 있던 30여명이 긴급히 대피함
- 나. 이후,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학교 관계자가 흡착포로 누출된 질산을 제거하고 질산 누출 과정에서 생성된 유해가스는 송풍기를 가동시켜 제거함

3. 사고 원인

- 폐기하기 위해 운반 중이던 질산용기 3개 중 1개를 대학원생이 부주의로 떨어뜨렸고 파손된 용기에서 질산이 누출됨

4.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

가. **화학약품 운반 시 주의사항**

- ▷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하여 인체 유해성, 취급 시 주의사항 등과 같은 **안전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**한 후 **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**할 것
- ▷ 화학약품 용기를 **손으로 운반 시에는 반드시 두 손을 모두 사용**하여, 한 손은 용기의 목 부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용기의 바닥을 받쳐 운반할 것
- ▷ 유리 용기에 든 **다수의 화학약품 운반 시**에는 누출이 없고, 깨지지 않는 **전용 운반용기 또는 2차 용기(양동이 등)에 담아 운반**할 것

- 나. **실험실 내 (폐)잔류시약 방치 금지**. 특히, 정년퇴임 예정 교수연구실과 실험실 이전 과정에서 잔류시약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기관(담당교수)에서 조치할 것